

6.25전쟁기 북한 문예운동사 연구

-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1951.3)에서 해체(1953.9)까지 -

김성수*

〈차 례〉

- 머리말 - 전쟁기 북한 문예(조직)운동사의 쟁점
- 남북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과 전시 활동
- 전시 '반종파투쟁'과 문예총 해체 및 조선작가동맹 결성
- 마무리 - 전쟁기 통합 문예총의 복권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6.25전쟁기 북한의 문예조직운동의 역사적 변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쟁기에 발행된 일간 『로동신문』 『민주조선』의 문예 기사와 월간 『문학예술』의 기사를 비교한다. 이러한 사료 비판을 통해 전쟁기 북한 문예조직의 변모과정을 실사구시로 복원한다. '남북 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연합회의(1951.3.10.)'를 통해 결성된 남북 통합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통합 문예총')의 전쟁기 활동 면모를 조직 해체(1953.9) 시점까지 정리한다. 그 결과 통합 문예총이 기관지 『문학예술』을 복간하여 창작을 활성화시키고 조직도 확대했음을 알았다. 중군 작가들은 전쟁 승리를 위한 인민군의 전투, 후방 인민의 투쟁, 조종 친선, 미제 비판 등을 소재로 시, 소설, 논픽션 작품을 창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예총은 전쟁 말의 '반종파투쟁'에 휘말려 해체되었다. 1953년 9월 26~27일에 열린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문예총이 해체되고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만 남았다. 이후 남북한의 문학사 어디에도 전시 통합 문예총은 서술되지 않아 복권이 필요하다. 이후 남북한의 문학사 어디에도 전시의 남북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존재를 찾을 수 없기에 복원, 복권이 필요하다.

*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교수

[주제어] 북한문학, 6.25전쟁, (통합)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반종파투쟁, 『로동신문』, 『민주조선』, 『문학예술』

1. 머리말 - 전쟁기 북한 문예운동사의 쟁점

이 글은 6.25전쟁기 북한 문학사를 문예단체와 조직의 변모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북한학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전쟁기 북한문학의 실상은 관련 전공자에게 여전히 인식론적 사각지대이다. 이에 전쟁기에 발행된 일간 『로동신문』¹⁾ 『민주조선』의 문예 기사를 새로 찾아 정리하고, 기존 논의에서 이미 분석한 월간 『문학예술』 기사와 교차 비교한다. 이러한 사료 비판을 통해 전쟁기 북한문학의 일단, 특히 문예조직운동사를 실사구시로 복원한다.

북한에서 나온 ‘조국해방전쟁 시기’ 문학사를 보면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의 전시문학의 실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²⁾ 전시 문학예술이 김일성과 당의 지휘 아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복무했다는 정전이 있지만 사실인지 의문이다.³⁾ 무엇보다도 북에서 ‘간첩분자 립화 도당의 부르주아미학사상과의 반종파투쟁’이라 부르고, 우리가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 조선문학가동맹 출신 ‘남로당계 월북작가들의 숙청’이라 부르는 전후 처리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전쟁기 문학의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 문예총 기관지 『문학예술』⁴⁾지 외에는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 시, 소설, 작품집, 기타 자료가 워낙 적다.

-
- 1) 인명과 조직, 매체 등 고유명사는 당시 문화어를 기준으로 삼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표준어 표기를 따른다.
 - 2) 전쟁기 북한문학의 미학적 의미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로 정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김종근, 「북의 조국해방전쟁기 문학과 한반도 문학사 재서술의 필요성」, 『통일인문학』 9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23, 45~75쪽. 다만 ‘부르주아 문예노선과 미학사상 비판’에 대한 비평사적 쟁점은 천착이 필요해 후속 논문을 준비 중이다.
 - 3) 역대 ‘조선’문학사 정전의 6.25전쟁기 문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은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수, 「6.25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 비판과 재구성 모색」, 『통일과담론』 3-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 2024.5.
 - 4) 월간 『문학예술』지와 주간 『문화전선』 등 전시 문예지의 실증적 검토는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역락출판사, 2020.2. 참조.

이런저런 이유로 6.25전쟁기 북한문학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작가들은 전시에 무엇을 했으며 문예조직단체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어떤 작가가 무슨 작품을 써서 독자들을 감동시켰을까, 도대체? 필자는 다행히 『로동신문』 『민주조선』의 문예란 자료를 상당부분을 찾아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새로 찾은 신문 콘텐츠와 문학예술지 등 기존 연구 자료를 사료 비판하여 전쟁기 북한문학 동향을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이 글에서는 전쟁기 북한 문예조직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문예운동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쟁기 문학의 당시 실상을 알 수 있는 일간 『로동신문』 『민주조선』의 문예란과 『문학예술』 『문화전선』 등의 문예지 등의 문예조직단체 관련 미디어콘텐츠를 분석 평가할 것이다.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문예총련합회의(1951.3.10)’ 결과 결성된 남북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통합 문예총’)의 전쟁기 활동 면모를 해체(1953.9) 시점까지 정리한다. 본문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겠지만 통합 문예총은 전쟁 말기의 반종파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해체되었다. 정확하게는 1953년 9월 26,27일에 열린 ‘전국작가예술가대회(1차 대회)’에서 해체되고 대신 ‘조선 작가/미술가/작곡가 동맹’만 남았다.

2. 남북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과 전시 활동

1) 남북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

1951년 3월 10~11일 평양에서 ‘남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⁵⁾가 개최되었다. 8·15해방 후 5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문학

5) 1951년 3월 10~11일 평양에서 열린 회의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남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는 『로동신문』 1951년 3월 13일자 기사 「남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합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신 발족」의 첫 문장 주어이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남조선문화련맹과의 통일을 위한 량 중앙위원회 연합회의’는 당일 회의에서 발표한 한설야의 보고

예술운동이 ‘력사적 연합회의를 통하여 완전히 통일된 단일 단체로 조직’되게 되었다. 제1일 회의는 3월 10일 오후 6시, 리태준의 개회로 시작되었다. 회의에는 로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창옥, 내각 선전성 김오성 부상, 남북 단체의 중앙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⁶⁾ 먼저 한설야가 당 중앙위 제3차 회의 결의와 문학예술동맹의 당면 과업⁷⁾을 보고하였다. 그는 해방 후 5년간의 정세와 남북의 문학예술운동을 회고하였다. 한설야의 보고문 요지는 3월 20일자 로동신문에 실렸다. 그에 따르면 회의의 공식 명칭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의 결정에 립각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남조선문화련맹과의 통일을 위한 량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이다. 한설야는 보고에서 해방 후 남북조선의 정치정세를 분석한 다음 남북 문학예술가들이 민족문학예술 노선을 걸어왔으며 인민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해방 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비롯한 선진적 애국적 문학예술의 의의를,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을 지지하고 프로문학예술의 정치성과 계급성에 반대했던 토착 부르주아의 사상적 대변자들과 투쟁한 데 있다고 하였다. 반면 리광수, 주요한, 럽상섭 등과 해외문화파인 리헌구, 김광섭, 류치진, 함대훈, 정인섭 등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문학예술이 조국과 인민에 복

문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총화와 문학예술인들의 당면 과업(요지)」(『로동신문』 1951.03.20)에 나온 명칭이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 연합회의’는 통합 문예총의 기관지 『문학예술』 복간호에 실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각 동맹 중앙위원」 기사에 실린 명칭이다. 『문학예술』 1951년 4월호(5.20 발행), 35쪽. ‘남북 작가 예술가 련합대회’란 명칭은 해방후 10년간의 문학사를 정리한 논문집형 문학사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55)에 실린 엄호석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우리 문학」, 176-177쪽에 있다. 안함광은 ‘조선작가대회’라 지칭했는데, 이는 1953년 10월의 전국작가예술가대회(제1차)를 혼동한 듯하다. 안함광, 『해방후 조선문학의 발전과 조선 로동당의 향도적 역할』,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33쪽 참조. 한편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행한 『해방후 10년 일지』(조선중앙통신사, 1955) 135쪽에는 “1951년 3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남북조선으로 나뉜 문학예술총동맹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합동하기로 결정’했고 부위원장은 김사량이 피선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오류이다. 서울은 평양의 오류이고 부위원장은 김사량이 아니라 조기천, 리태준이다.

- 6) 미상, 「남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합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신 발족」, 『로동신문』 1951.03.13. (#『북조선실록』 57권, 234-236쪽)
- 7) 한설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총화와 문학예술인들의 당면 과업(요지)」, 『로동신문』 1951.03.20. (#『북조선실록』 57권, 236-248쪽)

무하는 것을 반대하고 근로인민과 노동계급의 투쟁 무기화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의 내선일체와 황민화문화, 식민지 노예문화와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반동사상을 부식함으로써 인민의 애국심을 마비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맞선 선진적 문학예술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위에서 조국과 인민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창조했다고 자부하였다. 1951년 당시 문학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모든 것을 전선으로!” “모든 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최고지도자의 호소를 받들어 전쟁에 총궐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작가들이 전선과 해방지구, 후방에 파견되어, ‘전투적 시, 소설, 루쁘르따쥬’를 창작하여 인민군의英勇성과 인민의 애국심,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한설야의 보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시문학의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자기비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적잖은 작가들이 전선과 후방에 파견되었는데도 전쟁의 의의와 인민군의英勇적 모습을 인민에게 전달하여 인민을 전쟁 승리로 추동할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였다. 중군 작가들 대부분 ‘루쁘르따쥬’와 영웅 전투기, 전투실기(戰鬪實記)를 썼는데, 이들 작품이 인민군의英勇성과 적의 야만성 폭로의 구체적 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이라 창작에 상당한 시간과 공력이 필요한 소설이나 산문보다 현장성과 즉흥성이 있는 시와 가사는 적잖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애국심과 영웅주의 표현이 부족하며 비사실적인 언어가 넘쳐났다. 르뽐, 전투기, 시 대부분은 “조잡성과 생경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을 대하는 작가들의 사상적 예술적 무장이 불충분한 결함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그들을 맑스레닌주의로 교양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북 문학예술의 성과를 자랑하는 한편, 미군정과 리승만 단독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명분으로 한 이남 문학예술가들의 투쟁도 소개하였다. 1951년 전시 상황과 그 속에서 문학예술운동이 나아갈 방

향으로, 남북 단체가 합동할 때가 되었다고 문예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제2일 회의는 3월 11일 오후 6시 립화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작가 박웅걸은, 당과 국가에서 작가에게 작품을 쓸 훌륭한 여건을 마련해줬는데도 좋은 작품이 못 쓰는 이유는 작가들의 부족이다. 인민군들의 숭한 영웅적 위훈을 작품화하지 못하는 것은 작가들이 작품을 쓰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다. 작가는 전사처럼 전쟁 현실을 체험해서 작품을 쓰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설야가 문학예술인의 사상적 무장 강화가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본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남북예술단체 합동을 계기로 훌륭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도록 노력하자고 결론지었다. 결정서 통과 후 다음과 같이 조직 구성원을 뽑았다.⁸⁾

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선출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지도기관과 산하 각 동맹 열성자회의에서 선출한 각 동맹 중앙지도기관인 상무위원회와 장르별 동맹, 부속기관 성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1951. 3. 25)

한설야 문예총 상무위 위원장

리태준 문예총 상무위 부위원장

조기천 문예총 상무위 부위원장⁹⁾

박웅걸 문예총 상무위 서기장

문예총 상무위원: 리기영 신고송 립화 김순남 정관철 김조규 박영신 김남천,

문예총 감사위원장 안막, 감사위원: 김복원 리원조 안희남 리복명,

8) 대회 직후 3월 13일자 신문과 5월 20일 발행된 기관지 『문학예술』 1951년 4월 복간호 35쪽의 명단이 다르기에 주의를 요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각 동맹 중앙위원」, 『문학예술』 1951년 4월호(5.20 발행), 35, 81쪽.

9) 통합 문예총의 부위원장 서열이 대회 직후 나온 3월 13일자 신문에는 조기천, 리태준이었는데, 5월 20일 발행된 기관지 『문학예술』 1951년 4월호 명단에는 리태준, 조기천 순으로 바뀌었다.

문예총 조선문학동맹, 위원장 리태준 부위원장 박팔양 서기장 김남천, 위원;
리기영 한설야 림화 최명익 리원조 조기천 김조규 안희남 리용악 안함광 민병균
현덕 외,

문예총 조선음악동맹 위원장 리면상 부위원장 김순남 서기장 리범준, 위원 김
원균 외,

문예총 조선미술동맹 위원장 정관철 부위원장 박문원 서기장 탁원길, 위원 정
현웅 외,

문예총 조선연극동맹 위원장 신고송 부위원장 라용 서기장 김승구, 위원 송영
조령출 외,

문예총 조선영화동맹 위원장 심영 부위원장 윤상렬 서기장 윤재영, 위원 문예
봉 외,

문예총 조선무용동맹 위원장 최승희 부위원장 장춘화 서기장 박용호, 위원 정
지수 외,

문예총 조선사진동맹 위원장 김진수 부위원장 리태웅 서기장 김은주, 위원 고
룡진 외,

문예총 문화전선사 주필 김남천, 문학예술사 주필 김조규, 미술제작소 소장 선
우담.¹⁰⁾

2) 통합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전시 활동

전시에 남북 문예조직이 통합된 후 조선문학예술총동맹(통합 문예총)의
활동은 어땠을까? 통합 문예총의 전시활동은 우선 기관지 『문학예술』을 복
간하였다.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인민군』 등 일간지 문예란에 협소
하게 의존했던 발표지면을 폭넓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다음은 복간된
『문학예술』의 1년치 매체 분석과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¹¹⁾

10) 『문학예술』 1951년 제1호(5월 20일 발행된 1951년 4월호) 81쪽을 보면, 35쪽의 예총 중앙상무위
명단에 누락된 ‘리면상’을 추가한다는 정정기사가 있다. 같은 잡지가 다른 장소에서 따로 인쇄되어
나중에 합본 제작되어 배포되었다는 증거이다. 전시 인쇄사정의 열악함과 함께, 통합 문예총 기관
지 주필 김조규가 조기천, 리태준 사이에서 혼선을 겪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권호수 /잡지 권호 /간행물번호	기관 /발행소 /발행일	권두 기사, 특집, 기획	공고, 광고, 부록, 편집후기
조선문학 매체사 통권 44호 문학예술 24호 제4권 제1호 (4월호) ㄱ-01006	조선 문학예술 총동맹 문학예술사 책임주필 김조규 1951. 5. 20.	# 전쟁기 혁신호(문예총 조직과 편집주체 변모 반영)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각 동맹 중앙위원 명단, 35쪽(1951. 3. 25) [권두 소설] 한설야 단편, 승냥이 [주요문건] 김남천 단편, '꿀' 리복명 단편, '악마' 립화 시, '평양' 안합광 평론, '전시하(戰時下)의 조선문학(朝鮮文學)'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장군의 신년사에서 (발췌) [쪽광고] '전선문고 신간안내' 조기천 시집『조선은 싸운다』, 65쪽; '전선문고 신간안내' 임화 시집『너 어느곳에 있느냐』, 81쪽 [정정] 예총 중앙상무위 명단(35쪽) 누락된 '리면상' 추가 정정, 81쪽, '戰線文庫 신간 속속 출간' 광고, 표지4면
45 문학예술 25 4-2(5월호) ㄱ-01041	1951. 6. 10.	[권두 소설] 최명익, 기관사 국기훈장 및 군공메달 공로메달을 수여 받은 문학예술인들 : 리기영 리태준 립화 조기천 한설야 [주요문건] 김사랑, '바다가 보인다' 마산 진중에서(총군기 루뽀 루따유)	[목차/본문 사이] 임전(臨戰) 구호 [쪽광고] 조령출 남궁만 회곡집『전우, 은시계』, 24쪽; 종합시집『승리는 우리에게』, 62쪽; 신간안내 민병균 시집 고향』, 65쪽. 전선문고 신간안내 광고, 표지4면
46 문학예술 26 4-3(6월호) ㄱ-01059	1951. 7. 20.	[권두 연설문] 전체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김일성 장군의 격려의 말씀 [권두 정론] 영웅적 조국의 력사는 새 문화창조의 려명이다 [권두 소설] 립순득, 조옥희(趙玉姬)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말씀' 발췌 [알리는말씀=社告] 구독공지, 36쪽 [쪽광고] 소설집 한설야『승냥이』, 리태준『고향길』, 75쪽; 리복명 실화소설『포수부부전』, 80쪽 [표지4면] 전선문고 신간안내
47 문학예술 27 4-4(7월호) ㄱ-01085	1951. 11. 15.	[권두 소설] 나의 옛 친구 [기획] '전체 작가예술가들에게 주신 김일성장군의 말씀 높이 받들고 작가예술가들의 새 결의'- 김남천, 김 장군(金將軍)의 말씀은 창조사업의 지침이다 등 5편 [부음] 고 조기천 동지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쪽광고] 시집 김조규『이 사람들 속에서』, 안룡만『나의 따발총』 신간안내, 15쪽 [부고] 조기천 장례위, 예총 [판권지 위] 전선문고 신간안내 [표지4면]『아동문학』8집 광고
48 문학예술 28 4-5(8월호) ㄱ-01109	1951. 11. 30.	[권두 소설] 한호, 서울사람들(1)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쪽광고]번역시집『싸우는 조선에』, 66쪽 [표지3면]『문학예술』4~7월호 주요 내용
49 문학예술29 4-6(9월호) ㄱ-01127	1951. 12. 15.	[권두 소설] 황건, 안해 [주요문건] 박산운 시, 경애하는 수령 앞에 박세영 시, 문공단 환송의 밤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쪽광고] 소설집 윤두현의『소대 앞으로!』, 립순득 최명익의 현대『영용한 사람들』, 25쪽 [표지4면]『아동문학』8집, 9집 안내

11)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역락출판사, 2020. 2. 해당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50 문학예술 30 4-7(10월호) ㄱ-01137	1951. 12. 25.	[권두 소설] 강형구, 립진강(臨津江) [주요문건] 백인준 시, 출격을 앞두고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쪽광고]김상오 시집 『중오의 불길』, 32쪽 [표지4면] 전선문고 안내
51 문학예술 31 4-8(11월호) ㄱ-01138	1951. 12. 30.	[권두 소설] 이종민, 궤도 위에서 [주요문건] 이근영 단편, 고향 천천송 중군기, 화선을 넘어서 리용악 시, 막아보라 아메리카어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쪽광고] 박찬모 소설집 『밭갈이』, 32쪽; 김복원 시집 『운로봉』, 55쪽 [표지4면] 전선문고 안내
52 문학예술 32 4-9(12월호) ㄱ-01149	1952. 1. 15.	[권두 연설문] 문화예술인과 접견 석상에서의 김일성 장군의 연설 [권두 소설] 류근순, 회신 속에서	[목차/본문 사이] 김일성 연설 발췌 [표지3면] 『문학예술』 8~11월호 주 요내용
53 문학예술 33 5-1(1월호) ㄱ-01157	1952. 2. 25. 문예총출판 사(변경)	[권두성명] 1952년 신년에 조선 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에게 보내는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 김일성 장군의 축하문 1952년 신년에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원장 김두봉 동지의 신년사	[내표지]그림 : 고지 점령(정현용 판 화) [쪽광고] 소설집 『나루터』(목차, 문화 전선사), 30쪽
54 문학예술 34 5-2(2월호) ㄱ-01165	1952. 3. 20.	[권두 기획 시]오늘도 부탁한다 (군인 창작 5편)	[내표지]그림: 박문원, '서울해방'(판 화) [쪽광고] 홍순철 시집 『승리의 노래』 (제목만), 73쪽
55 문학예술 35 5-3(3월호) ㄱ-01168	1952. 4. 15.	[권두 정론]갑남천, 김일성 장군 의 『현재단에 있어서 지방정권기 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 시의 말씀을 작가예술가들은 어 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권두 소설] 천청송, 정찰병들	[내표지]그림 : 밭갈이(손영기 판화) [쪽광고] 유항림 신간 『진두평』(제목 과 출판사), 55쪽 [표지3면]가곡:우리도 전사다
56 문학예술 36 5-4(4월호) ㄱ-01179	1952. 5. 5.	[권두 평론]한철야, 김일성 장군 과 문학예술 [권두 소설] 박태원 소설, 조국의 깃발(1) [주요문건] 리갑기 단편, 강 림화 시, 40년- 김일성 장군의 탄 생 40년에 제하여 소설, 평론 합평회	[내표지]그림 : 파종전선(정관철) [쪽광고] 동요동시집 신간 56쪽 ; 시 집, 희곡집 신간 69쪽; 미학 번역서 『예술에 있어서 자연주의에 반대하 는 맑스레닌주의적 미학』, 83쪽 [표지3면] 『문학예술』 1~3월호 주요 내용, 단행본(중 『조선문학』(문학 사)... 립화)
57 문학예술 37 5-5(5월호) ㄱ-01183	1952. 5. 30. # 1년 만에 정 간물 발행 정 상화	[권두 희곡]송영, 그가 사랑하는 노래 [주요문건] 시, 시나리오 합평회	[내표지]그림 : 도하작전(최계덕 립 군홍) [쪽광고]신간(문학사, 립화 『조선문 학』) 33쪽, '알리는말씀'(구독료 안 내), 81쪽 ; 김사랑 중군기 『바다가 보 인다』 83쪽 [표지3면]가곡 : 5월의 노래

『문학예술』은 1950년 7월호 이후 전쟁으로 인한 6개월 휴간 후 1951년 4월호로 복간되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다시피 1년 내내 제 때 발행되지 못했다. 책임 주필은 이전의 안함광에서 김조규로 교체되었고 김남천, 립화 등 이남 출신 작가들의 글이 많이 실렸다.

통합 문예총은 『문학예술』 복간으로 안정된 발표지면 확보와 함께 조직사업도 확대하였다. 작가 예술가들을 전선과 후방으로 현지파견하여 전투 실기와 중군기 등의 창작 및 예술선동사업을 시행하였다. 중군작가들은 전쟁 승리를 위한 인민군의 전투 무용담, 후방 인민의 투쟁, 조중친선, 미제 비판 등의 소재를 작품화하였다.

문예총의 전시 활동 몇 사례를 창작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로동신문』 1951년 4월 4일자 기사를 보면 문예총 산하 조선문학동맹 소속 작가들이 전시 중에도 창작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설야, 박용걸 외 여러 작가들은 공화국 영웅의 전투 모습을 묘사한 전투실기를 탈고하였다. 작가 박용걸은 영웅 김봉호, 시나리오작가 윤두현은 영웅 김봉철, 소설가 김승구는 385고지의 네 영웅을 형상화하였다. 후방의 인민유격대 투쟁을 창작 테마로 삼은 작가인 조벽암은 안주소년빨찌산, 김만선은 곡산빨찌산, 윤세중은 맹산빨찌산을 각각 작품화하였다. 이밖에 리북명의 「정복되지 않는 조선의 딸」, 리춘진의 「참다운 녀성」 등 여성의 투쟁을 그린 작품도 탈고되었다.¹²⁾

전시에도 노동자의 명절인 5·1절을 맞게 된 문학예술인들이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¹³⁾ 희곡 작가 남궁만은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그린 「기관사 김정복」을 탈고했고, 작가 황의현은 춘기과중사업을 완수한 농민을 그린 희곡 「달밤」을 탈고하였다. 시인 박세영은 가사 「5월 행진곡」을 쓰고 이미 작곡도 완료되었으며, 리원우는 「5·1의 노래」를 집필하였다. 최석두는 5·1절을 노래하는 가사를 집필 중에 있으며, 조기천, 민병균, 오장환을 위시한 많은 시인들은 벽시를 썼다. 이 벽시들은 미술동맹과의 공동주최로 개최

12) 미상, 「작가들 창작사업에 노력」, 『로동신문』 1951.04.04. (#『북조선실록』 58권, 713~714쪽)

13) 미상, 「문학예술인들의 5·1절 기념 창작사업 활발」, 『민주조선』 1951.04.23. (#『북조선실록』 59권, 757~758쪽)

된 5·1절 기념 가두 시 벽화 전람회에 제출한 것이다. 소설가 최명익은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근일 중에 탈고할 예정이며 김남천, 박찬모 등 여러 작가들도 전시 노동자의 활동을 그린 작품을 집필 중에 있다는 기사이다.

노동자의 명절인 5·1절을 기념하여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5.1절 경축대회에 참석하였던 립화의 귀환 소식과 좌담회 기사¹⁴⁾도 눈에 띈다. 1951년 6월 14일 조쏘문화협회 중앙본부에서는 모스크바 5.1절 경축대회에 참석하였던 립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인들의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좌담회에서는 소련 방문 여행에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립화는 특히 쏘베트의 미술 연극 오페라 음악 등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소련작가들과의 담화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1951년 말과 이듬해 초에 조선문학동맹 서기장 김남천은 전시문학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총화하였다.¹⁵⁾ 그는 조선문학동맹 제5차 상무위원회(1952.1.10.)에서 지난 1951년 문학이 거둔 창작성과와 동맹 사업을 자체 평가하였다.

1951년에 있어서 우수한 작품으로 소설에 있어서 한설야 작 단편소설 「승냥이」, 유허림 작 중편소설 「진두평」, 리복명 작 단편소설 「포수 부부전」을 포함한 9편, 시 부문에 있어서는 고 조기천 작 「조선은 싸운다」, 립화 작 「흰 눈을 붉게 물들인 나의 피 위에」, 김상오 작 「집」을 포함한 19편의 작품과, 희곡 씨나리오 부문의 한봉식 작 장막극 「탄광 사람들」, 윤두헌 작 씨나리오 「소년 빨치산」을 포함한 12편과, 아동문학에 있어서는 리원우 작 소년소설 「싸워 이긴 아이들」 등 4편의 작품을, 또한 외국문학 번역에 있어서는 크레빠쵸브 원작, 조기천 역 「김일성 장군」, 안드레이 말리스코 원작, 립화 역 『조선 포에마』 등을 들었다.¹⁶⁾

14) 미상, 「쏘베트문학예술에서 배우자! - 립화 동무의 귀환 좌담회에서」, 『로동신문』 1951.06.17.

15) 김남천, 「문학은 인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 -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학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민주조선』 1951.12.30;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총화 - 조선문학동맹에서」, 『민주조선』 1952.01.20; 「1951년도의 문학작품들」, 『로동신문』 1952.02.13.

16)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총화, 조선문학동맹에서」, 『민주조선』 1952.01.20.

조선문학동맹 상무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성과작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인민군대 영웅성을 그린 유헥림의 「진두평」, 현덕의 「하늘의 성벽」, 김만선의 「사냥군」, 적 점령하의 인민 투쟁을 그린 최명익의 「기관사」, 립순득의 「조옥회」, 후방 인민의 투쟁을 그린 박찬모의 「밭갈이」, 류근순의 「회신 속에서」, 조중친선을 그린 리태준의 「고귀한 사람들」, 강형구의 「립진강」, 미제 만행을 폭로한 한설야의 「승냥이」, 리북명의 「포수 부부전」.

위에 제시한 소설 성과작과 함께 시, 가사 성과작도 주제별로 목록을 제시하였다. 즉, 인민군의 영웅성을 노래한 립화 「흰 눈을 붉게 물들인 나의 피우에」, 조기천 「나의 고지」, 황하일 「포위 섬멸의 밤」, 리원우 「지금은 총 잘 쏘는 사격수」, 김학연 「독로강 기슭에서」, 전선의 인민 투쟁을 노래한 조기천 「조선은 싸운다」, 립화 「평양」, 김상오 「집」, 정문향 「그는 이렇게 걸어갔다」, 김우철 「어머니의 부탁」, 김조규 「수령의 말씀을 받들고」, 후방 인민의 투쟁을 찬양한 상민 「소」, 최석두 「영웅 최치정」, 조쑤, 조중 국제친선을 노래한 김복원 「평화를 위하여」, 민병균 「전우의 나라를 찾아서」, 리용악 「다만 이것을 전하라」, 리병철 「승리의 날」 등이다. 허웅배 「즐거운 우리 분대」, 정서춘 「고향의 어머니」, 신동철 「정찰병의 노래」, 신상학 「양키 토벌가」 등의 가사도 성과로 들었다.

끝으로 상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비판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과 신인 육성과 더욱 많은 작가를 전선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시 중 내내 작가 예술가들의 현지 파견 사업은 계속되었다. 가령 1952년 11월에 열린 문예총의 제9차 상무위원회에서도 한층 강화된 현지 파견 사업이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문예총 제9차 상무위원회에서는 1952년도 1년간의 문학예술 창조사업을 총화하면서 중요한 결함의 첫째로 작가 예술가들이 아직도 인민생활에 대한 연구와 체득이 부족한 탓으로 작품에서 추상성과 개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결함을 퇴치하기 위하여 작가 현지 파견계획을 강화하였다. 금번 작가

17) 미상, 「작가 현지 파견」, 『로동신문』 1952. 11. 15. (#「북조선실록」 90권, 314~315쪽)

의 현지 파견은 기간이 종래보다 장기간으로 길어진 것을 특징이라 하였다. 3개월간 파견과 6개월간 파견의 두 가지 어느 경우든 이전처럼 유람식으로 단기간에 현지를 보고 돌아오는 일부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업 취지에 맞는 요강에 의거하여 작가들이 직접 인민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사업을 도와가며 그들의 생활감정을 체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전시 ‘반종파투쟁’과 문예총 해체 및 조선작가동맹 결성

1) 전시 반종파투쟁

1952년 12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¹⁸⁾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제4차 전원회의 이후 1년의 성과를 총괄하고 당 조직 상의 결함을 종파주의로 지적하였다.¹⁹⁾ 주목할 것은 그가 당원들의 질적 향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가령 개인영웅주의를 위해 당 중앙 노선을 자신의 노선으로 바꿔치기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함경남도 당위원장 박영수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일성은 이어 “당성을 강화해 자유주의와 종파주의의 잔당과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과거의 혁명 공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요 사업을 못하는 자, 친척, 동창, 친구, 고향사람을 모아 일하고,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의 차이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주의’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종파주의의 잔당은 표면적으로는 당과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무시하고 당에 해를 끼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제5차 전원회의의 연설을 통한 김일성의 숨겨진 의도는 박헌영의 남로당계

18)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1952. 12. 22. 1~6쪽.

19) 김일성,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로동신문』 1952. 12. 22. 1쪽.

열에 대한 공격을 의미했다.²⁰⁾ 가령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우리 형제당의 경험에서 밝혀졌듯이, 만약 우리가 종파주의의 잔당과 투쟁하지 않는다면 종파주의자들은 결국 적의 간첩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예술장에선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비판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이 직접 문예총 내 종파주의적 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금 문예총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남이니, 북이니 또는 나는 무슨 그룹에 속했던 것이니 하는 협애한 지방주의적 및 종파주의적 잔재 사상과의 엄격한 투쟁을 전개하며 문화인들 내에 있는 종파분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동시에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조국의 엄숙한 시기에 모든 힘을 조국전쟁 승리를 위하여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¹⁾

1953년 새해가 되자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의 실천으로 종파주의자의 적발과 비판, 자기비판이 활성화되었다. 반종파투쟁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권력 다툼 끝에 ‘리승엽 도당의 간첩사건’(1953.8)으로 외화되었고, 그 중심에 있던 립화를 중심으로 문예총 지도부와 문학예술장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가령 『문학예술』 1952년 11월까지 광고란에 있던 립화의 문학사 소책자 『조선문학』 광고가 다음호부터 슬그머니 사라졌다. 1953년 1월호 『문학예술』를 보면 비평 파트에서 한효, 안함광이 앞장서서 장문의 평문을 통해 립화, 김남천, 리태준을 자연주의, 형식주의 수법을 보인 부르주아미학사상으로 비판하였다.²²⁾

『문학예술』지의 편집체제 변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1952년 12월호부터 립화, 리태준의 문학장 내 헤게모니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

20)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남상구·조윤수 옮김,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2023, 520-526쪽 요약.

21)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로동신문』 1952.12.22, 1쪽.

22)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1~4), 『문학예술』 1953.1~4; 안함광, 「김일성 원수와 조선문학의 발전」(1~4), 『문학예술』 1953.4~7.

을 감지할 수 있다. 가령 문예지의 목차체계와 본문 순서가 불일치하고 비문학 정론이 권두에 배치되는 등 매체 편집의 방향이 당 정책 선전지 경향을 전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종군문학의 예술적 수준을 고양했던 창작 합평회가 사라지고 문예분야에서의 김일성 개인숭배를 강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매체지향이 고착화되었다.

그나마 『문학예술』 지상에서 벌어진 립화, 리태준 등에 대한 한효, 안함광의 비평이 자연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 비판이라는 미학적 문예이론적 차원인 데 반해, 일간신문의 비판은 훨씬 공격적이었다. 『민주조선』 1953년 3월 14일자를 보면 「그의 죄상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는 자극적 제하의 기사에서, 그의 죄상을 전면적으로 폭로 비판되었다. 그가 지닌 반동적 부르주아사상미학뿐만 아니라 문예총 내의 조직활동, 평론, 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심지어 해방 전 카프 활동과 해방직후 서울에서의 조선문학가동맹 활동, 해주에서의 문예조직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폭로 비난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문예총 내의 종파주의 두목은 립화이며, 그의 반당적, 반계급적 종파행동은 해방 전부터 은폐되어 있던 그의 반계급적이며 반당적인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매도되었다.²³⁾

기사에 의하면, 립화는 1951년 3월의 남북 문화단체 합동 이후 문예총 지도부를 장악한 리태준, 김남천, 박찬모를 조종하여 문예총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며 문예총 사업을 자기들 종파의 이익에 복종시켰다고 하였다. 그는 문예총 지도부에서 유능한 지도일군을 추방하고 지도부의 기능을 압살했으며 문학동맹 각 분과위원회에서 신인을 몰아내고 자기편을 끌어들이 종파세력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심지어 과거 이남에서 반소 반복적인 시를 창작하여 방송까지 한 김상훈을 문학동맹과 조소문화협회에 잠입시켰다고 하였다. 그렇게 자기편 20여 명을 조소문화협회에 끌어들이 협회에 종파세력을 부식하고 『조소친선』 『조소문화』에 반당적 반국가적 반소적 작품을 게재했다고 하였다.

23) 미상, 「그의 죄상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민주조선』 1953.03.14.

뿐만 아니라 립화는 신인을 작품 지도할 때 민주 건설과 당과 수령을 노래한 작품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감빠니야 시를 쓰면 책의 첫머리에는 올라갈 것이나 그것은 고상한 문학이 아니니 쓰지 말라.”고도 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종파적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당 간부인 종파 ‘전우’ 리원조와 조일명이 백방으로 보장하여준 덕분이라고 배후까지 들먹였다.²⁴⁾ 이들 ‘죄상’의 사실 관계를 판단, 평가할 만큼의 반증 자료가 없어 요령부득이지만, 1951,2년의 전시 문예총 활동을 그렇게 쉽게 매도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만 남기도록 한다.

이후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 박헌영 남로당계 문학가들은 종파분자로 몰려 전면적 비판을 받았다. 1953년 초부터 신문 잡지 지상에 공개적으로 비판, 비난, 매도당하다가 8월에 터진 ‘리승엽 도당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재판 받았다. 리태준은 기석복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립화, 설정식 등은 반란 반국가 죄목에다 미제 스파이로까지 몰려 처형당했다.²⁵⁾ 문학사적으로 보면, 남북 통합 문예총을 결성하고 휴간된 기관지를 복간시켰으며 작가들을 전선과 후방 등 현지파견시켜 중군문학 성과를 올렸던 문예총 특히 문학동맹 지도부의 상당수 인적 자원이 종파로 몰려 문학예술장에서 소거된 셈이다.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은 반종파투쟁의 정치적 희생양일 뿐만 아니라, 1953년 9월 26~27일의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한설야, 민병균, 홍순철 등 새로운 문예조직 지도부에 의해 ‘반동적 부

24) 이 글에서는 전시 문예운동사적 시각에 한정해서 ‘립화 도당’의 반종파투쟁을 다룬다. 때문에 그들의 시와 평론에 담긴 ‘부르주아사상미학 비판론’은 비평사적 후속 논의를 따로 한다. ‘부관참시,’ ‘2차 가해’적인 1956년 3월의 엄호석, 한설야대 기석복, 정률 비평논쟁을 분석할 논문에서 상술할 것이다.

25) 미상, 「리승엽 도당들의 공화국 전복 음모와 간첩사건에 대한 공판 개정」, 『로동신문』, 1953.8.5; 「피소자들에 대한 사실 심리 종료」, 『로동신문』, 1953.8.8.; 「홍악한 미제의 간첩도당들에게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다」, 『로동신문』, 1953.8.8.; 「리승엽 도당 사건에 대한 공판정에서 피소자들 자기 범죄행동을 진술 - 피소자 립화의 진술(요지)」, 『로동신문』, 1953.8.7.; 「판결 - 3. 립화」, 『로동신문』, 1953.8.8.; 「박헌영의 비호 하에서 리승엽 도당들이 감행한 반당적 반국가적 범죄적 행위와 허가이의 자살사건에 관하여(전원회의 제6차 회의 결정서 1953년 8월 5일~9일)」, 『1953년도 전원회의 정치·조직·상무 위원회 결정집(1952.12~1953.12.)』, 35~45쪽. (『북조선실록, 년표와 자료』 제100권, 325~333쪽); 미상, 『미 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헌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 문헌』, 국립출판사, 1954. 참조.

르주아사상미학 문예로선'의 원조 주범으로 낙인찍혀 문학사에서 지워져 버렸다.

2) 문예총 해체 및 조선작가동맹 결성

1953년 9월 26~27일 평양에서 '전국작가예술가대회'가 개최되었다. 전쟁 기간의 문학예술 창조사업 성과를 총화하며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서 문학예술이 할 과업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였다.²⁶⁾ 이틀간 열린 회의는 문예총 위원장 한설야의 사업 총화 보고, 시나리오작가 윤두현, 비평가 한효, 음악가 리면상, 시인 민병균, 극작가 신고송, 무용가 최승희, 시인 홍순철, 평론가 안함광, 작가 황건, 작곡가 문경옥, 미술가 선우담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설야는 지난 전쟁기간 3년의 문예총 사업을 총화해서 보고하였다.²⁷⁾ 전쟁 승리와 복구 건설 과업과 관련된 정세 분석 후, 소설 시 희곡 미술 음악 무용 등 각 방면에 걸친 성과작을 각 장르와 주제별로 예거하였다. 그는 총론에서 작가 예술가들이 자신의 문학예술을 가장 사상성이 높고 가장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도록 노력하고 인민을 투쟁의 길로 이끌며 생활의 부정면을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이상과 실천력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적잖은 작가 예술가들이 인민군대에 종군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여, 전투에 참가하는 한편 창작을 하면서 자신의 투지, 용감성, 애국심을 고양했다고 하였다. 전시 문학예술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종군 작가의 보고문학인 '전선 루뽀르타쥬'와 '오체르크'(전투 실기, 실화문학), 무공을 세운 공화국영웅의 전기였다고 하였다.²⁸⁾

26) 미상, 「전후 복구건설투쟁에 있어서 문학예술의 전투적 과업을 토의」, 『로동신문』, 1953.9.28. (# 1953.9.26~27 전국작가예술가대회 개최, 제1일 회의 보도, 『북조선실록』 103권, 379~382쪽)

27) 한설야,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한설야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3.10.14. (#『북조선실록』 103권, 382~394쪽)

28) 전쟁기 문학 성과의 구체적인 작품 예시는 9월 26-27일 대회 당일의 보고문이 아니라 대회 다음날 9월 29일자 신문에 실린 대회의 의의를 자체 평가한 후속 문건에 담겨 있다. 한설야, 「전후 복구건설과 작가 예술가들의 당면 과업」, 『로동신문』, 1953.9.29.

그 다음 “문학예술계에 잠입한 간첩 파괴분자들과 일체 적대 사상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하여 승리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립화 김남천, 리태준, 리원조 등 이른바 ‘립화 도당’을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을 옹호하는 인민민주주의적 문예노선을 반대하여 반동적 부르주아 문예노선을 대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학예술 분야에 잠입한 그들이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작품의 출현을 막고 부르주아적 자연주의 작품들을 전파하기 위한 파괴공작에 광분하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립화 도당이 전시 북한 문학에서 당성과 계급성을 거세하여 문학의 사상적 무장 해체를 획책하였으며 현실을 왜곡 비방하는 자연주의 및 형식주의를 백방으로 부식시키려고 기도했다는 혐의였다.²⁹⁾

문학예술 사업의 결함도 언급하였다. 문학예술 창조에서 아직도 전선에서 취재한 작품이 부족하며 영웅 형상화하는 사업도 불만족스러우며 후방 인민의 투쟁을 묘사한 작품도 적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 소련과의 국제 친선을 묘사한 작품이 적으며 당과 당원의 선구적 역할이 미약하게 묘사되었다고 하였다. 아동문학사업이 낙후되었으며 신인 육성 및 합평, 논평회도 부족한 현상을 지적하였다.

결함 극복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작가 예술가의 당면 과업으로 사회주의 레알리즘 창작방법 고수,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학예술에서의 당성 강화, 신인 육성, 창작사업에 있어서의 비판의 강화, 아동문학의 발전, 맑스레닌주의 교양사업의 강화 등이다.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 나선 근로대중에서 새로운 전형을 탐구하여 형상화하는 한편, 선진 소련 작가 예술가들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부단히 배우라고 하였다. 특히 립화 등 간첩암해 분자들의 반동적 문예노선 잔재를 숙청하고 그 사상적 영향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29) 립화 도당을 ‘리승엽 도당의 간첩사건’ 범죄자로 규정하는 정치적 숙청과 병행하는 ‘반동적 부르주아 문예노선과 미학사상 비판’에 대한 비평사적 논란을 1956년의 ‘2차 가해’와 연관시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후속 논문을 준비 중이다.

“우리 문학예술대오는 립화 도당을 적발 소탕하는 투쟁 행정에서 더욱 단일적이며 강력한 역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상적 반대자들과의 투쟁에서 얻은 우리의 성과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문학예술이 맑스레닌주의적 미학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민족문학예술의 전통을 옹계 계승하고 선진 소비에트 문학예술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모범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학예술의 역량이 장성한데 그 주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한설야의 보고는 양면적이다. 문제는 향후 ‘문예총’을 비판하고 단일한 문예전선의 대오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립화를 비판하는 한설야 중심으로의 『문학예술』지의 논조 변화는 이미 1952년 12월호, 가령 광고면에서 립화 『조선문학』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대목에서도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는 ‘립화 도당’이 헤게모니를 쥐었던 문예총 비판이 기관지 편집에도 관철된바 역으로 이러한 매체사 및 비평적 논조 변화에 주목하여 문예총의 의의와 한계를 역설적으로 포착해낼 수도 있다.³⁰⁾

한설야의 보고에 이어서 예술장르별 대표들의 토론이 전개되었다. 토론에는 시나리오 작가 윤두현, 평론가 한효, 작곡가 리면상, 시인 민병균, 극작가 신고송, 무용가 최승희, 시인 홍순철, 평론가 안함광, 작가 황건, 작곡가 문경옥, 미술가 선우담, 영화인 박학 등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참가하였다.³¹⁾

윤두현은 창작사업과 관련하여 극문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당면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 나설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의 로력투쟁을 고찰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극문학 창조에서 일부 반동작가의 갈등론 왜곡과 비속화 경향을 비판하였다.

한효는 문학예술의 고상한 인민적 성격을 왜곡하려고 부르주아사상을 주입시켜 파괴적 행동을 감행하던 립화 도당의 반당적 반인민적 책동을 규탄

30)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 감사드린다.

31) 이례적으로 10월 14일자 당 기관지 몇 면에 걸쳐 이들 문예장르별, 문학분과별 토론 요지가 상당 분량 실렸다.

하였다. 자연주의 작가들이 추구한 문예노선도 미제의 만행과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반동적 노선과 합치되므로 미제의 침략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방조한다고 하였다.

리면상은 8·15해방 후 평화적 건설기와 전쟁기의 음악 창작 성과로, 가극 〈운달〉, 〈꽃신〉, 교성곡 〈압록강〉, 합창 〈법성포 배노래〉, 〈방아타령〉, 독창곡 〈산으로 바다로 가자〉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반동 작곡가들이 민족 음악 발전에 끼친 해독을 비판하였다. 가령 음악에서 사상적 내용을 도외시한 말초적인 음의 작란을 음악기술로 오인하는 편향이 있다고 하였다. 말초적인 음의 작란을 가지고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형식주의와 모더니즘이 발생되므로, 그러한 반동적 경향과 투쟁하며 전쟁에 동원되었던 역량을 전후 복구 건설에로 집결시키자고 하였다.

민병균은 일부 시인들이 시 창작에서 범한 자연주의 및 형식주의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일체 부르주아적 창작방법을 퇴치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교양을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고전시가와 계승과 조선문학 섭취 및 창조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신고송은 전후 복구건설에 참여한 인민을 승리로 고무 추동하는 희곡 작품을 대량 창작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 예술인들을 현지 파견하여 집체적 지도사업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특히 고전무용을 계승하며 무용예술을 인민 속에 더욱 보급하자고 강조하였다. 안함광은 카프 문학의 전통을 상세히 언급한 후 전후 작가 예술가들에게 제기되는 문예창작 분야에서의 과업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는 문학의 당성을 더욱 제고하며 문학에 관한 이론 학설을 구체적 현실 가운데 심화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홍순철은 일부 자연주의적 작가 예술가들이 반동적 부르주아 문예사조를 침투시키려고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경향과의 투쟁에서 평론가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김일성의 ‘로작’을 깊이 연구할 것을 역설하였다.

선우담은 미술 분야에서의 고전을 계승 발전시킬 방안을 토론하였다. 고

전 유산의 발견, 수집, 보호 사업부터 시작하되, 고전 섭취에서의 무비판적 좌경적 오류를 일소하고 고전미술에 대한 평론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박학은 전시 영화 창작성과를 나열하였다.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도움으로 극영화 〈소년빨찌산〉, 〈또 다시 전선으로〉,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정찰병〉, 〈비행기사냥군조〉, 기록영화 〈정의의 전쟁〉, 〈세계에 고함〉, 〈세균만행〉, 〈싸우는 철도 일군〉, 〈땅의 주인들〉 등을 창작했다고 하였다. 그중 〈또 다시 전선으로〉는 국제영화축전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촬영 기술과 연기에서 아직 형식주의적 경향이 있어 당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하였다.³²⁾

서만일은 외국문학 번역에서 일부 지식인의 요구에 충당하려는 협소하고 개인 취미적인 것을 일소하고 광범하게 인민대중을 교양하는데 목적을 두자고 하였다. 번역문학이 문예전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 문학의 번역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문학을 널리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복원은 미래 세대 육성의 의의가 큰 아동문학 발전을 역설하였다. 아동문학을 마치 성인문학의 미완성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경향을 비판하고 구전 동요, 동화 등 민족 고전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별나라』, 『신소년』 등에 실린 카프 아동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자고 하였다. 계속하여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한설야가 토론 전체를 정리하였다. 그는 빛나는 승리로 전쟁이 종결된 후 인민들 앞에 제기된 평화적 조국통일과 인민경제 복구 발전의 과업이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가장 큰 임무를 주었다고 하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체의 사상적 준비를 충분히 할 것이며 문학예술 창작기술을 부단히 연마하며 인민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그들을 교양시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학예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정력을 기울이며 신인 육성과 평

32) 박학, 「토론 (요지)」, 『로동신문』, 1953. 10. 14.

론 사업 강화를 역설하였다.³³⁾

이들간의 전국작가예술가대회로 통합 문예총은 해체되었다. 다음날인 1953년 9월 28일 대회 참가자들은 직군별로 모여,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을 각각 조직하였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작가, 미술가, 작곡가의 3개 동맹으로 조직 개편할 데 관한 전국작가예술가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9월 28일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 회의가 각각 진행되었다.³⁴⁾ 각 동맹 회의들에서는 각기 중앙위원, 중앙상무위원, 분과위원 및 부서 책임자들을 선출하였다.

조선작가동맹 회의에서는 중앙위원으로 한설야 외 38명을 선출하고 상무위원, 『문학예술』 편집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설 시문학 극문학 아동문학 평론 등 5개 분과위를 조직하였다. 조선미술가동맹 회의에서는 중앙위원으로 정관철 외 26명과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회화 조각 평론 등 3개 분과위를 조직하였다. 조선작곡가동맹회의에서는 리면상 외 16명의 중앙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하였다. 각 동맹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상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 서기장 홍순철, 상무위원 ; 한설야, 리기영, 박팔양, 정률, 홍순철, 김조규, 한효, 송영, 민병균, 윤두헌, 박세영, 김복원(후보), 조명출(후보).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 정관철, 부위원장 길진섭, 서기장 김익성, 상무위원 ; 정관철, 길진섭, 선우담, 문학수, 문석오, 정종여, 장진광, 림홍은, 김익성.

조선작곡가동맹 위원장 리면상, 부위원장 리건우, 서기장 리천백, 상무위원 ; 리면상, 리건우, 리천백, 박한규, 안기옥, 김철성, 김옥성, 윤복기(후보), 리정언(후보).

조선작가동맹에서는 9월 30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소설, 시문학, 극문학, 아동문학 평론 등 5개 분과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이에 선거된

33) 한설야,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3.10.14. 요약.

34) 미상,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을 각각 조직」, 『로동신문』, 1953.9.30. (# 『북조선실록』 103권, 515~517쪽)

각 분과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³⁵⁾

소설분과위원회 위원장 황건, 위원 ; 한설야, 리기영, 박용걸, 김영석, 윤시철,
리춘진, 리복명, 변희근, 윤세중, 한봉식

시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민병균, 위원 ; 김조규, 김복원, 박팔양, 박세영, 김
순석, 리용악, 홍순철, 조벽암, 동승태, 리찬, 전동혁, 홍종린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복원, 위원 ; 송창일, 리원우, 강효순, 리진희,
신영길, 신고송, 박세영, 윤복진

극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윤두헌, 위원 ; 김승구, 신고송, 조령출, 송영, 남궁
만, 박태영, 홍건, 한성, 한태천, 서만일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장 한효, 위원 ; 정률, 기석복, 안함광, 엄호석, 김명수, 신
구현.³⁶⁾

통합 문예총을 해체하고 대폭 축소된 조선작가동맹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지파견사업 강화였다. 명분이야 “신발족한 새 기구로서 전체 작가들에게 부과된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며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에 기여할 결의”로, “인민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그들을 교양”시키라는 대회 보고에서 찾으면 되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종파분자나 간첩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남은 작가들도 당의 명에 따라 전후 복구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도시, 공장, 농어촌, 제철소 등에서 노동체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 3/4분기부터 1954년 2/4분기 사이에만도 연 172명의 작가 시인들이 연 559일에 걸쳐 현지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복구 건설 현장에서 노동 체험도 하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도 하고 현지 노동자의 창작 의욕과 문화 욕구에 맞춰 문예창작도 지도하였다. 가령 리찬은 함남 신포수산사업소,

35) 미상, 「조선작가동맹 제2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분과위원을 선출」, 『민주조선』, 1953. 10. 3. (#『북조선실록』 103권, 607~608쪽)

36) 이 명단을 1951년 3월 25일자 문예총 중앙위, 조선문학동맹의 구성원 명단과 비교하면, 립화, 김순남, 리원조, 리태준, 김남천, 박찬모, 김상훈 등 숙청된 간부를 어렵게 짐작할 수 있다.

조벽암은 황해제철소에 3~6개월 파견되어 현지 노동체험을 하였다. 1954년 만 해도 60여 작가가 흥남질소비료공장, 청진제철소, 성진제강소 등 대공장과 국영 농목장, 농업협동조합 등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작가동맹의 창작성과도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하였다. 정전 후 1년간 평론 36편, 소설 119편, 시 330편, 가사 224편, 극 36편, 아동문학 460편이 창작되었다. 1953년 11월 14일 작가동맹 산하 6번째 분과로 외국 문학분과도 조직되어 소련 작품을 비롯한 외국 작품 318편이 번역되었다.³⁷⁾ 고전분과에서도 성과를 냈는데, 리갑기는 『삼국유사』의 설랑 설화 등을 작품화하였고³⁸⁾, 윤세평은 『춘향전』을 주석했으며, 리응수, 조운은 『구전민요선집』의 고려편을 집필하였다.

한편 전쟁과 반종파투쟁이란 인위적 재앙으로 대폭 외형이 줄어든 문학 예술장의 인적 자원을 하루빨리 늘려야만 하였다. 그것이 바로 신인 육성사업일 터이다.

4. 마무리 - 전쟁기 통합 문예총의 복권을 위하여

지금까지 6.25전쟁기 평양에서 결성된 통합 문예총의 결성(1951.3)부터 해체(1953.9)까지 살펴보았다. 전쟁기 북한 문예조직의 부침만 신문, 잡지의 미디어콘텐츠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뿐, 종군작가의 활동과 그들의 종군문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전쟁기 문학 동향 전반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전쟁기 북한문학의 문학적 의미와 역사적 성격을 살펴볼 예정이다.³⁹⁾

남북 코리아의 문예운동사적 시각에서 봤을 때 전시의 통합 문예총은 통

37) 『조선중앙년감 1954~55(1953.7~1954.6)』, 조선중앙통신사, 1955, 459쪽.

38) 리갑기 편역, 『조선사화집 : 삼국시대편(조선고전문학선집 25)』, 국립출판사, 1956.

39) 익명의 심사위원 권고대로 문예총 외 다른 기관지나 『전선문고』같은 회귀 자료도 복원하여, 립화 기석복 등의 전시 작가론도 정리하고 ‘림화 도당’으로 비판받았던 최명익, 김상오, 정서춘, 김귀련 등의 행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자료난이다.

일문학운동의 주요한 기원이자 전통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 오늘날 수령론과 주체사관이 지배하는 북한의 어느 문학사나 교과서에도 이 조직의 존재는 은폐, 삭제되었다. 하지만, 195,60년대까지는 전시 중의 통합 문예총을 자랑스러워하였다.

전국작가예술가대회(1953.9.26.-27)에서 문예총을 해체할 때도 통합 사실 자체의 의의는 존중하였다. ‘립화 도당’의 흔적을 없애려고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사진동맹 등 7개 예술장르 동맹의 연합체였던 통합 문예총을 전격 해체하면서도 통합 사실 자체는 지우지 않았다. 전쟁기 문예 성과를 총화한 한설야 보고에서도 1951년의 남북 문예단체 통합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그 질과 량에 있어서 일찍이 조선 문학예술사상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로동당과 김일성 원수의 지도 밑에 1951년 3월에 수행된 남북조선 문화단체의 연합은 우리나라의 애국적 진보적 문학예술의 조직 대렬을 강화하며 그로 하여금 당의 현명한 정책을 받들고 왕성한 창조사업에 일층 쫓기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⁴⁰⁾

다만 전시 문예단체 통합의 공을 ‘당과 김일성’의 것으로 오로지 한 점은 외면할 수 없다. 만약주체사상을 유일화한 후대 문학사라면 ‘수령의 령도’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도 있었다. 1961년 3월의 문예총 재결성을 하면서 남한에 통일문학운동을 제의⁴¹⁾할 때도 자신들의 문예운동, 통일운동의 전사(前史)로 1951년 연합대회와 통합 문예총 결성을 언급하였다.⁴²⁾ 한설야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재)결성대회 보고를 보면, 전시였던 1951년 3월 북문예총과 남조선문화단체총련맹과의 연합대회 후 문예총이 결성되었기에 ‘남북

40) 한설야,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3.10.14. (#북조선실록』 103권, 382~394쪽)

41) 한설야, 「문학예술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문학신문』, 1960.11.22.

42) 한설야, 「천리마 시대의 문학예술 창조를 위하여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 『조선문학』 1961.3, 13~29쪽.

련합의 전통' 위에서 당금(1961.3)의 문예총이 창립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남조선 작가 예술가들에게' 문화 교류 제안과 통일을 호소하는 공개서한⁴³⁾까지 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조선문학사'⁴⁴⁾ 정전에선 남북 문예단체의 전시 통합이란 사실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지워버렸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쟁점이 있다. 남북 코리아의 문예운동을 거시적으로 보면 전시의 통합 문예총이 통일문학운동의 주요한 기원이자 전통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데도 간과, 외면한 사실이다. 2005,6년에 시행된 남북 작가의 대화-교류-협력-조직화에 나섰던 문학가들이 함께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1951년의 과거사를 간과, 외면한 것이다. 2005년의 '민족작가대회'(평양)와 2006년의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금강산)의 앞선 전통으로 전쟁기 통합 문예총의 존재를 복원, 복권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05년 당시 남북 대화를 추진했던 양측 작가들 모두가 왜 이를 몰랐거나 외면했을까? 남북 대화를 통해 통합 작가 조직(6.15민족문학인협회, 2006.10)을 만들려던 양측이 통일문학운동의 기원이자 전통으로 전시의 통합 문예총(1951.3)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정무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2005,6년도 그렇고 2024년 지금도 남북 당국은 립화, 리태준, 김남천, 리원조 등을 '불편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들을 통일문학운동의 은폐, 소거된 선배로 거론하면 이북 당국이 소통 자체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70년 전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과 그들의 염원을 이렇게 오래 묵인해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학자라면 정무적 판단보다 사실을 우선해야 할 터이다.

43)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반부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문학』 1961.3, 8~12쪽.

44) 북한의 역대 문학사 18종을 검토한 결과이다. 김성수, 「북한 '조선문학사'의 역사 - 탈정전 북한문학사 연구 서설」,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학회, 2022.12. 263~300쪽. 김성수, 「6.25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 비판과 재구성 모색」, 『통일과담론』 3-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 2024.5. 참조.

■ 참고문헌

1. 자료

『로동신문』, 『민주조선』, 『문화전선』, 『문학예술』, 『조선문학』, 『조선중앙년감』, 『조선대백과사전』.

2. 단행본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하 (1900-전후시기), 과학원출판사 1959.11.(=도서출판 인동, 1988)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190권, 코리아데이터센터 편, 선인출판, 2018~2024.

김선려 리근실 정명옥, 『조선문학사(11)/해방후편(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역락출판사, 2020.2.

_____, 『북한문학비평사』, 역락출판사, 2022.5.

김용직, 『북한문학사』, 일지사, 2008.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_____,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2』, 한길사, 1996.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심층적 이해』, 국학자료원, 2012.

남북문학예술연구회, 『해방기 북한문학예술의 형성과 전개』, 역락, 2012.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경진, 2011.

리갑기 편역, 『조선사화집 : 삼국시대편(조선고전문학선집 25)』, 국립출판사, 1956.

리동원, 『조선문학사』 3(1945-5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12.

미상, 『미 제국주의 고용 간첩 박현영 리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 문헌』, 국립출판사, 1954.

_____, 『해방후 10년 일지』, 조선중앙통신사, 1955.

_____, 『조선문학사:문학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 민족문학사 강좌』, 창비사, 2009.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10.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 항일혁명문학에서 주체문학까지』, 평민사, 2000.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남상구, 조윤수 옮김,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2023.

윤세평 외,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정병준 외, 『북한신문 연구 해제집 :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 선인출판사, 2021.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증보판), 소명출판사, 2020.

조선문학강좌, 『조선문학사(일반과용)』, 사회과학출판사, 200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편, 윤세평 외, 『현대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7.

최형식, 『조선문학사(3)(사범대학용)(1945-1953)』, 교육도서출판사, 1975.

평양사범대학 조선문학강좌, 『조선문학(현대편)(교원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65.6. 3판.

한설야 외, 『제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3. 논문

- 김성수,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문학의 도정」,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67-98쪽.
- _____, 「북한 '조선문학사'의 역사 - 탈정전 북한문학사 연구 서설」, 『민족문학사연구』 80, 민족문학사학회, 2022.12., 263~300쪽.
- _____, 「6.25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 비판과 재구성 모색」, 『통일과담론』 3-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 2024.5.
- 김종근, 「북의 조국해방전쟁기 문학과 한반도 문학사 재서술의 필요성」, 『통일인문학』 9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23, 45~75쪽.
- 김진수, 「한국전쟁기 북한 신문에 보도된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기사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952년 민주청년,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9호, 호남사학회, 2023, 225~252쪽.
- 김태경,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 박사논문, 2018.
- 배개화,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대립과 그 원인, 1945~1953」, 『한국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 45-75쪽.
- 안함광, 「해방후 조선문학의 발전과 조선 로동당의 향도적 역할」,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5-76쪽.
- 엄호석,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우리 문학」,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67-270쪽.

A Study on the History of North Korea's Literature and Arts Movement during the Korean War

- From the formation(1951.3) to the dissolution(1953.9)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

Kim, Seong-s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literary and artistic organizations during the Korean War. Specifically, it compares the literary articles of the daily *Rodong Sinmun* and *Democratic Joseon* published during the war with the articles of the monthly *Literary Arts*. Through this criticism of historical source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literary organization during the war is restored as it 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of inter-Korean integration reinstated the journal *Literature Arts* to revitalize creation and expand the organization. The war writers created the real story of the People's Army's battle for victory in the war, the struggle of the rear people, th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riticism of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was disbanded by being caught up in the ‘Anti-sectarian struggle’ at the end of the war. At the ‘National Writers and Artists’ Conference’ held on September 26-27, 1953, the *Munyechong* was disbanded, and only the *Joseon Writers’ Alliance*, the *Joseon Artists’ Alliance*, and the *Joseon Composers Alliance* remained. Since then, the existence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of inter-Korean integration during the war has disappeared anywhere in the literary history of

* Professor of writing at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two Koreas, and restoration is needed.

Key words : North Korean literature, Korean War,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lliance,
'Anti-sectarian struggle,' *Rodong Sinmun*, *Democratic Joseon*, *Literary Arts*